



이엠커뮤니티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이엠커뮤니티(대표 문창숙)는 겉으로 보기엔 서울시내에 있는 여느 인쇄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5명이 전부인 직원 수에 인쇄기라고는 지하 작업장에 있는 마스터기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장비다. 시설만 놓고 따지자면 을지로 일대에 밀집해 있는 수 많은 인쇄사들의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곳은 최근 몇 년 동안 크고 작은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인쇄업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엠커뮤니티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

4명이 1천만원씩 대출 받은 밀천으로 설립

2004년 5월에 문을 연 이엠커뮤니티는 설립 배경부터가 조금 남다르다. 여성정신장애우 4명이 뜻을 모아 무담보 소액대출(마이크로크레딧)을 실시하는 사회연대은행으로부터 각자 1천만원씩 빌린 돈을 모아 만든 곳이다. 이엠커뮤니티는 사업 초기만 하더라도 인쇄사라기 보다는 조그마한 복사가게에 가까웠다. 시설이래봐야 복사기 2대가 전부. 작업물량도 대부분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이사진의 도움으로 학습교재를 만들며 근근히 회사를 꾸려가는 수준이었다.



여성정신장애우 4명이 소액대출로 인쇄사 설립 3년 만에 기획인쇄사로 성장, 사회에 기부도

그러던 것이 불과 3년만에 지금은 복사는 물론 마스터 인쇄, 표지디자인까지 아우르는 어엿한 기획인쇄사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최근에는 디자인 광고 및 DM 사업으로까지 영역을 확장하면서 매출도 크게 늘었다. 일손이 많이 필요한 DM 작업은 이엠커뮤니티의 모체이자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산하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이엠실천 인원 15명이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정신장애인 채용으로 사회참여 의욕 고취

이엠커뮤니티의 '이엠(EM)'은 Empowerment의 줄임말로 장애인이 자선의 대상으로 소극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힘을 키워나간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 회사의 직원 5명 가운데 4명은 장애인이다. DM을 맡고 있는 15명의 직원들도 대부분 크고 작은 정신장애를 앓았던 이들이다. 김영환 이엠실천 과장은 "정신장애인들은 특히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들에게 동등한 사회참여 의욕을 고취시키고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돕는 것이 설립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26일 이엠커뮤니티는 마이크로크레딧 기금으로 사회연대은행에 100만원을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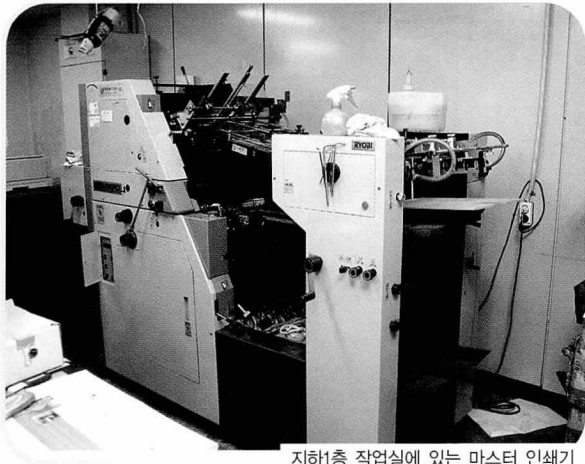


문창숙 이엠커뮤니티 대표(좌)와 김영환 이엠실천 과장(우)

부하면서 다시 한 번 화제를 모았다. 그도 그럴 것이 소액신용대출을 받은 사업장 가운데 상환을 끝내고 역으로 기부를 한 첫 사례였기 때문이다. 이엠커뮤니티는 앞으로도 적은 금액이나마 지속적으로 이 같은 기부 사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초기 아무도 건적 낼 줄 몰라 찢찢매기도

이엠커뮤니티의 운영을 맡아 3년 만에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올려놓은 사람이 바로 문창숙 대표이다. 그는 원



지하층 작업실에 있는 마스터 인쇄기

래 인쇄와는 무관하게 서울대학교를 나온 후 고등학교에서 불어를 가르치던 교사였다. 남편이자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상임이사인 이용표 교수를 통해 자연스럽게 장애인재활사업에 관심을 갖게 됐다. 물론 처음부터 인쇄사업이 탄탄대로였던 것은 것은 아니다.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다. “저를 포함해 직원 대부분이 인쇄에 문외한이라 어떻게 견적을 내는지조차 몰랐어요. 아시다시피 인쇄라는 게 시간과의 싸움인데 아침에 들어온 견적 의뢰를 저녁때까지 못내서 찢찢맨 때도 있었죠. 제가 고객이었더라도 보통 인쇄심이 아니었으면 참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해하고 기다려준 분들이 한 없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뿐만 아니다. 거래처에서 디자인과 한글 편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외부에서 사람을 구하느라 애를 먹었다. 매월 1500만원에 이르는 외주비용을 줄이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큰 마음 먹고 들여놓은 마스터 인쇄기는 한 달 매출이 200만원도 채 안돼 쓰린 속을 달래야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장애인들이 인쇄를 한다는 것에 대한 불신이었다고 한다.

디자인 부문 강화로 경쟁력 향상 도모

이엠커뮤니티는 앞으로 일반 오프셋 인쇄사와 견줄만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품질향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디자인. 인력 충원을 통해 현재의 학습 자료집이나 단순 리플렛 제작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고급 표지 디자인을 필요로 하는 월간지나 계간지 등의 출판·편집 업무까지 총괄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시설 및 공간 확충은 물론 이엠실천과 함께 정신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장애우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치원 기자 kcw@print.or.kr

문창숙 이엠커뮤니티 대표

“사회로부터 받은 도움, 사회로 되돌리는 것은 당연”



★ **사회연대은행에 기부를 한 것이 화제다.** 쑥스럽다. 큰 액수를 기부한 것도 아니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아 스스로 일어설 수 있었던 만큼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작게나마 보탬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 **정신장애인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는 이유는**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가 심각한 편이다. 실제로 이엠실천에서 직업재활훈련을 받고 일반업체에 어렵게 취업을 해도 하루만에 돌아오는 경우도 많다.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이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자립의 기회를 제공할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이엠커뮤니티를 설립한 배경이 됐다.

★ **어려운 점은 없었나**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쪽으로 소개를 해주어서 많은 도움이 됐다. 이전 먼저 이엠커뮤니티를 알고 연락을 주는 곳도 생겨났다. 개인적으로 회사 경영을 맡으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직원을 월급 만큼은 한 번도 밀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열심히 일해 준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